

문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 4: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 하시다.

성경적 근거: 요한복음 4:24; 시편 90:2; 말라기 3:6; 야고보서 1:17; 열왕기상 8:27; 예레미야 23:24; 이사야 40:22; 시편 147:5; 로마서 16:27; 창세기 17:1; 요한계시록 19:6; 이사야 57:15; 요한복음 17:11; 요한계시록 4:8; 신명기 32:4; 시편 100:5; 로마서 2:4; 출애굽기 34:6; 시편 117:2; 출애굽기 3:14; 시편 145:3

질문 1: 하나님이 신이 되심을 어떻게 가장 잘 알수 있는가?

질문 2: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가장 잘 알수 있는가?

질문 3: 하나님은 무엇에 무한하시며, 무궁하시고, 불변하신가?

질문 4: “무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질문 5: “영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영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질문 6: “불변”의 의미는 무엇인가? “불변”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질문 7: 하나님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설명할 수 있는가? 혹 설명할 수 없다면, 왜 설명할 수 없는가?

질문 8: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 9: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설명:

하나님이 신이 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알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역시, 성경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알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란 특별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특별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엿 볼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수는 없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마치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성격이나 속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부모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 더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때 “무한” “영원” “불변”등의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체험과 한계를 넘어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처음부터 제한되고 변할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들과 같이 제한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제한된 속성을 지닌 신을 믿을 필요도, 믿을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분이며 초월자이시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만하신 분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제한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사람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한다. (창세기 1:26-27) 어떻게 제한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답을 하기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나눠서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무한, 영원, 불변 하심은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들에 속한다. 그러나 지혜, 능력, 거룩, 의로움, 좋으심, 진리 등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에 속한다. 이렇게 공유할수있는 속성들이 있기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분과 미천하고 제한된 속성을 가진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밑의 추가질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보기로 한다.

먼저, 마태복음 16:13-17 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라

질문 10: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라고 했는가?

질문 11: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닫은 것인가?

질문 12: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해서 알수 있었다고 했는가?

베드로의 신앙고백의 우수성은 그는 그의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의 신앙고백은 어떠한가? 믿는자에게 훌륭한 신앙고백은 정말 중요하다. 신앙고백은 그저 몇 마디의 단어를 엮은것이 아니다. 신앙고백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예배가 된다. 훌륭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네게 복이 있도다.**” 그렇다, 훌륭한 신앙고백은 복 된 것이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꼭!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은 혹, 우리가 영똥한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수도 있는것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또한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할수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 2 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2-1. 하나님의 속성들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볼 수 없으시며, 몸이나 부분들이나 정욕이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다 이해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모든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며 악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며; 더욱이 그의 판단들에 있어서 지극히 공정하시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유죄자(有罪者)를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분이시다.
